IL SOO & SUNG AE KIM
WEST AFRICA MISSION
P.O.BOX 2684 Serrekunda
Gambia/W/AFRICA
소속기관 총회 세계 선교회 (G.M.S) 파송교회 : 대구 남부교회 (이재범목사)

한해를 결산하면서

힘든 2021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2022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021년은 어느 해보다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이 땅을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계획들이 실행되고 있기에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2021년 감비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교회와 모든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미약하지만 새벽마다 교회와 각 가정들을 위해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어진 사역에 세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면서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염려했던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감비아에서 볼 때 너무 중요한 선거였고 이 선거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선거가 있었고 현 대통령이 60% 가까운 득표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올해 실시되는 OIC (이슬람 협력기구개발) 정상회담 있고 이 행사를 위해서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감비아와 무슬렘 입장에서는 더 없는 좋은 기회이지만 기독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계하고 이 일로 인하여 혹시 교회가 위축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두 교회는

올해는 교회가 새롭게 날개를 펴고 날아 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교회가 많이 움추려들었고 날개를 펴고 날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만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역자들과 청년들과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좀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내린 결정은 말씀과 기도에 좀더 충실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올해는 영적으로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아부코 교회는 약간의 수리를 하였습니다. 선풍기를 새롭게 교체하고 주일학교를 위해 대형 텔레비전을 설치하였습니다.

마리아마쿤다 교회는 전기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내일 온다고 약속한 날이 거의 4달이 넘어가지만 언제 전기가 들어올 찌 기약이 없습니다

대서양에서 일어난 작은 기적들





성탄절 전날 대서양 바다에서 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0년 전도에 개종한 자매나 교회에서 자라온 3명의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기쁨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 드렸습니다.

KPC (감비아 장로교단) 청소년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I live by The WORD of God (Matt 4:4) 주제로 무슬렘 속에서 크리스찬 으로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만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말 씀에 충실한 삶으로 새롭



게 태어나자 는 다짐속에 복음을 듣지 못한 '풀라 니 종족'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 영화 상영과 전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소년들이 감비아 교회를 향한 미래의 희망이기에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영적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로운 교회 개척을 위한 마지막 끈을 놓치 않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방송국 사역과 유치원 사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각자 위치에서 아이들은 아이 나름대로 저희들은 현장에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습니다. 선교사라는 것 때문에 아이들 얼굴을 보지 못한 지가 5년이 넘었습니다. 가능하면 올해 아이들을 만나 부모로서 하지 못한 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열정을 갖도록
2> 제자 훈련을 통하여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3. OIC 정상회담이 교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4. 저희 가족들 건강할 수 있도록

선교는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함께 하므로 더욱 빛나는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사역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작은 나라 작은 동네 망고 그늘아래에서
김일수, 최성애 선교사 드립니다.